

〈發 題 辭〉

心理哲學의 問題*

趙 要 翰

(前會長)

지난 7月10일에 있었던 理事 및 編輯委員 합동회의에서 79년도 추계 연구 발표회의 주제를 “心理哲學(Philosophy of Mind)의 문제”로 정하였다. 아울러 이번 발표회서부터는 주제에 대한 배경설명을 회장단에서 하기로 하였다. 부과된 그같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에 대한 간단한 發題의 辯을 하겠다.

* * *

인간은 한갓된 物質인가? 혹은 인간은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된 특수한 物質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형성된 “物質 이상의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 “物質 이상의 것”속에 意識이 있는가? 意識이 존재할때 “무엇”이 意識하는가? 즉 意識의 主體는 무엇인가? 이러한 마음과 몸의 문제(Mind-Body problem)를 다룬 것은 哲學에 있어서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데카르트의 논의에서부터 비롯하였다고 하겠다. 오늘날에 와서는 心身問題가 철학의 주요 관심사들 가운데 하나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心身問題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논의의 공통의 場으로 삼게 된 “公式의 理論”을 피력하였다. 그는 《省察》(Meditations) 제 6에서 “몸은 그 자신의 본성으로서 언제나 可分的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不可分的의”이라고 함으로써 “精神이 實體의으로는 몸과 구별됨”을 증명하였

*이 특집토론은 1979년 12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International House에서 본 연구회의 1979년도 추계연구발표회에서 발표, 논평된 것임.

□ 趙要翰

다. 그에게 있어 意識의 主體는 마음(mens)이다. 데카르트는 非延長的인 마음은 延長的인 몸과는 독립된 實體라는 二元論의 見解를 밝혔다.

이와 같이 마음과 몸의 두 독립된 實體를 말하면서 이 양자가 때로는 서로 因果的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데카르트가 거론한 후, 두 개의 實體를 주장하는 二元論의 테두리 안에서 (1) 서로의 因果關係를 인정하는 相互作用說(Interactionism)과 (2) 몸에서 마음으로의 방향의 因果性만을 인정하는 副產現象說(Epiphenomenalism) 및 (3) 마음과 몸의 因果關係를 부정하면서도 마치 언제나 같은 時刻을 가리키는 두 개의 時計와도 같이 서로 작용한다는 平行論(Parallelism) 등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의 후계자였던 스피노자가 제기했던 대로 “두 개의 屬性(思惟와 延長)은 실제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양자를 다른 實體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 (Ethics, part I, prop. X note)는 입장에서 (4) 인간은 非物質의 존재인 동시에 物質의 존재라는 二重樣相說(Double-aspect theory)도 주요논의들 가운데 하나였다.

인간의 마음과 몸의 관계를 문제삼는 여러 哲學理論들이 19세기까지는 神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했기 때문에 잠재적이거나 이른바 形而上學의 前題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자연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實證主義的方法에 의한 人間說明이 이루어지면서 20세기 心理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行動主義(Behaviorism)가 몸과 마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意識이란 어떤 종류의 刺戟에 따라 유도되는 일종의 신체적 행동에 의하여 定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제의 接近方法을 다루는 方法論的 行動主義(Methodological Behaviorism)가 아니라 意識의 本質과 意識을 지시하는 表現의 分析에 관한 理論인 形而上學的 行動主義(Metaphysical Behaviorism)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어떤 환경 밑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行動의 性向(disposition)에 관한 일반적 특징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특수한 조건이 성립될 때 그 결과로서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체적 성향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에 비하여 현대의 物理學과 腦神經生理學의 桴鼓할 만한 연구성과는 마음과 몸의 문제에 새로운 照明을 던져 주었다. 2 차대전

이후 G. Ryle, J. J. C. Smart, P. F. Strawson 등이 이 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G. Ryle 은 *The Concept of mind* (1949)에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를 마치 私的인 마음의 居處에 幽靈이 살고 있는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람도 어떤 적당한 조건 하에서 어떤 행동에의 性向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즉 그것은, 시계가 움직이는 것이 작은 요정이 있어 기계를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시계에 적당한 動力을 주면 계속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편, J. J. C. Smart 는 *Sansations and Brain Processes**(1959)라는 논문을 통하여 “*Sansations are brain-processes*”라고 주장하여 同一性 理論(Identity theory)을 내세웠다. 즉 感覺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大腦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同値는 아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번개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放電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같듯이 서로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 즉 意識은 인간의 몸의 일부 특히 大腦의 神經細胞에 있어서 어떤 物理化學的 過程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一元論的 物理主義(Physicalism)라 불리어진다. Smart 의 이와 같은 同一性 理論은 科學的 假說이지만 그것은 경험적 사실에 의하여 檢證 또는 反證될 수도 있다는 입장에서 R. Brandt 와 Jaegwon Kim에 의해서 비판되었다. 즉 관찰과 실험에 의한 檢證 또는 反證이 가능한 것은 同一性 理論이 아니라 對應(Correspondence) 命題이기 때문이다. 同一性 理論은 경험적으로 反證이 가능할 것이다. 가령 소년의 이(齒)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도 그 소년의 大腦속에 그것에 對應하는 物理化學的 過程이 생기지 않았다는 극히 神秘的인 사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경험적 근거에 의존하지 않는 同一性理論은 오히려 ‘形而上學的인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R. Brandt and J. Kim, ‘The Logic of the Identity Theory’ 1967) 이 같은 同一性理論에 대한 論駁에서 다른 길을 찾아들어 간 사람이 R. F. Strawson이다. 그는 *Individuals* (1959)에서 人格說(the person theory)이라고 불리어지는 二重樣相說의 변형된 이론을 제기하였다. 心的인 것도 物理的인 것도 다 人格의 屬性이다. 人格이란 心的 屬性과 物理的 屬性을 함께 가지는 實體이다. 인간이 마음과 몸이라는 한 統一的 主體인 人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다른 實體가 있다는 二元論에 의해서 주장될 수도 없고,

또 身體(物理)的인 것에만 귀속시키려는 物理主義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Strawson의 입장이다. 그는 특히 모든 것이 身體의 상태에 의존한다는 一元論的 物理主義에 대하여 自我的 無主體說('no-subject' doctrine of the self)이라고 비판하였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胡塞의 現象學은 그 기반을 절대적 明證에서 찾고 있다. 그가 《데카르트의 省察(Cartesianische Meditationen)》을 저작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세기 心理學은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추구에서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精神科學으로서의 心理學은 內的 體驗을 찾아 들어가서 意識에 주어지는 것을 記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志向性(Intentionalität), 즉 무엇에 관한 意識에서 意識作用 자체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같은 대상을 놓고서는 內在的 體驗統一이 다르기 때문이다. 胡塞에 있어서 모든 對象的 存在는 意味形成體로서 구성하는 意識의 志向作業에 對應하는 것이다. 이 現象學에서 문제삼는 意識의 主體와 心身同一論에서 문제삼는 그것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다. 한편 胡塞은 'Ich denke'의 主體만이 아니라 'Ich kann'의 主體, 즉 身體主觀性(Leibsubjektivität)을 문제삼았다. 胡塞이 남겨 놓았던 문제를 이어받은 M. Merleau-ponty(*Phenomenology of Perception* 1945, trans. by C. Smith, 1962)는 知覺經驗의 匿名的 主體는 '自己的 身體'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身體야말로 世界를 향한 우리의 닻이다. 身體에 의하여 우리는 이른바 世界안에 居住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삼는 身體란 對象化된 身體, 生理學者가 문제삼는 客體的인 身體가 아니다. 그것은 그것에 의지하여 世界로 향하는 '現象의 身體'이다. 이렇게 現象學에서 문제삼는 身體와 心身同一論에서 다루는 身體 사이에 어떤 對話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討論 主題이다. 自然科學의 발전과 더불어 哲學界에 풍미하였던 實證主義와 唯物論으로 말미암아 哲學하는 主體가 흔들릴 때 이에 맞서 '事象自體'를 문제삼은 現象學과 現代科學의 진전에 연유한 同一論과의 對話가 어떻게 성립될는지 의문이다. 보는 觀點이 다르더라도 對話模索이 곧 哲學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 方法的 差異를 다시 우리가 模索하여 나아가고자 한다.

마음과 몸의 문제를 다룬 英美哲學의 최근의 動向을 우리 나라에서 論文으로 다룬 것은 金鎮泰교수(케이스 웨스턴 리저브大學)의 ‘心理哲學의 現況’(<哲學> 제 7 집, 1973)이 있다. 한편, 1974년 한국철학회에서는 李明賢교수(서울大)가 ‘人間: 그 現代的 理解와 問題性—B. F. Skinner의 Behaviorism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토론이 전개된 일이 있다. 陸士의 曹升玉교수는 그의 ‘同一論에 立脚한 心身問題’(<哲學論究> 제 4 집, 1975)라는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철학회 分析哲學 분과연구회에서는 *Readings in the Analytic Philosophy* (1977)라는 이름으로 외국 논문들을 편집·발간하였는데, 그 제IV부(Mental and Physical)에서 이 방면의 중요한 논문들을 실고 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미시간大學의 金在權박사는 *The Monist, The Journal of Philosophy,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등을 통하여 同一性理論에 대한 그의 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학회는 미시간大學에서 각각 *Causal Explanation of Human Action* (1974)과 *Sartre's.. concept of Self* (1976)라는 學位論文을 쓴 蘇興烈교수(이화여대)와 申午鉉교수(경북대)가 心身同一論과 自我同一性의 입장에 서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